

“지역 예술가와 행촌 선생 기리는 ‘풀뿌리 미술관’ 의미있죠”

〈행촌의료재단 설립故 김제현 박사〉



행촌문화재단 이승미 초대 대표이사

해남종합병원 김동국 원장, 선친 유지 받들어 설립 행촌미술관 개관 기념 17일부터 ‘인생-풍류가인전’ 레지던시 공간 ‘임하도 작업실’ 운영...해남문화 연구

행촌의료재단의 설립자인 고(故) 행촌 김제현 박사는 남도의 풍류를 유난해도 사랑했던 이다. 평생 해남과 장흥, 진도, 광주 등 지역 예술가들을 가까이하면서 그들의 후견인으로서의 삶을 즐긴 사람이기도 하다. 그의 사랑채에서는 이름 없는 미술인들이 몇 달씩 기거하면서 작품 활동을 했고, 김 박사는 그들이 떠날 무렵 작품을 구매하는 것을 평생 낙으로 여겼다. 그가 그렇게 수집한 작품은 200여 점에 달한다. 해남종합병원 김동국 원장이 김 박사의 뜻을 계승하고, 그와 함께 시대를 풍미한 예술가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기 위해 행촌문화재단을 설립했다. 행촌 선생의 아들인 김 원장은 선친이 수집한 작품들의 활용방안을 고민하다가 지역 예술인들의 발자취를 살펴보고자 올 봄부터 행촌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재단

대표이사는 이승미 전 인터넷플랫폼 관장이 맡았다. 지난 6일 광주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 대표이사는 “지역 작가들의 후견인으로서의 풍류를 즐겼던 행촌 선생의 삶과 함께 예술 작품을 남기고 떠난 작가들을 재조명할 계획”이라며 “행촌문화재단은 행촌 선생을 기념하는 행촌미술관(관장 김은숙)과 ‘임하도 작업실’을 함께 운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해남종합병원 동관 1층에 위치한 행촌미술관에서는 오는 17일부터 12월12일까지 개관전 ‘인생(人生)_풍류가인(風流佳人)’전이 열린다. 전시에는 고인과 벗으로 지낸 예술가들의 작품과 다구, 수석, 도자기 등이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재단 설립에 앞서 행촌 선생이 남긴 작품들을 이태호 명지대 교수 등과 전문가들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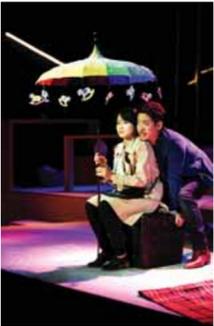
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남도의 정서와 예술을 기록했다’며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잊혀져 가고 있는 지역 예술가들을 연구하는 지역 미술관이 필요하다는 조연도 있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하는 유명 작고 작가의 미술관이 아닌 예술을 사랑했던 이와 가까이 지냈던 지역 미술인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특히 많은 작가들이 사후에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행촌문화재단과 미술관의 출발은 의미 있는 일이지요. 행촌미술관 같은 풀뿌리 미술관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행촌문화재단은 미술관과 함께 해남 문내면 임하도에 있는 수련원을 작가들의 창작을 위한 레지던시 공간으로 꾸미고, ‘임하도 작업실’이라고 이름 지었다. “동시대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도와야 한다”는 고인의 유지를 따르자다. 아름다운 낙조와 풍광을 자랑하는 우수영 인근에 있는 임하도 작업실은 4~5명의 작가가 함께 입주해 작업할 수 있다. 현재는 지난해 이중섭미술상 수상자인 서용선(전 서울대 교수) 작가가 지난 6월부터 입주해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남도는 한국 미술사의 큰 줄기인 윤림산방과 운두서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미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임하도 작업실에서는 한국미술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작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또 해남의 깊이 있는 문화를 국내외 동시대 작가들과 함께 연구하고 전개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작업실 인근에 있는 빈집들을 예술가들과 함께 꾸미는 프로젝트도 구상하고 있어요.” 앞으로 행촌 선생이 남긴 작품과 레지던시 입주 작가들의 작품들은 임하도 작업실과 행촌 미술관을 오가며 교차로 전시될 예정이다. 또 내년 봄에는 임하도 작업실 오픈 스튜디오를 통해 일반인에게 예술 섬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임하도와 공간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동국 행촌문화재단 이사장은 “처음에는 망설이기도 했지만 선친께서 친분 있던 예술가들을 통해 보았던 남도의 정서가 담긴 작품들도 충분히 가치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단을 설립하게 됐다”며 “이번에 뿌린 행촌문화재단이라는 씨앗이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친은 평소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사주는 것이 지역 문화를 살찌우는 일이라고 생각했으셨다”며 “앞으로 지역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고 지역 작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재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정인지자ki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내 아내의 모든 것’ 연극으로

19일까지 동산아트홀

7년간의 결혼 생활. 그 시간은 두 사람을 완벽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아름다운 외모의 아내 정인은 불평과 독설 작업하는 못말리는 여자가 됐고, 그런 정인을 못견뎠던 남편 두현은 결국 전설의 카사노바에게 아내를 유혹해 달라고 부탁한다. 임수정·이선균·류승룡이 주연을 맡았던 동명 영화가 원작인 ‘내 아내의 모든 것’이 오는 19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에서 공연된다. 평일 오후 7시30분, 주말 오후 3시·7시. (월요일 공연 없음·15세 관람가) 연극 ‘한여름 밤의 꿈’ ‘페르퀸트’ 등을 만든 양정웅이 연출을 맡은 이번 작품은 정통 연극의 틀을 따라가되,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는 멀티 역의 남여 배우 두명이 라이브 음악을 선보이며 색다른 맛을 더한다. 마쭈 카사노바 성역 맡은 배우의 오버스러운 연기가 웃음을 더하며 영화를 본 관객들에게는 영화 속 인상깊었던 대사들이 세록세록 떠오를듯하다. 2시간에 육박하는 다소 긴 러닝타임을 줄여 이야기를 임팩트 있게 끌고 갔으면 좋았을 듯하다. 전석 3만원. 다양한 할인 혜택이 있다. 문의 062-360-843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연극·뮤직파티 결들인 미디어아트 결혼식

성유진-손만석 작가, 11일 1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개막식 있는 오후 7시까지

광주에서 LED야광봉·연극·뮤직파티 등의 퍼포먼스가 결들인 미디어아트 결혼식이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7일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입주작가가 ‘2014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기간 중 미디어아트 웨딩 마치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아티스트 성유진씨와 애니메이션 작가 손만석씨는 오는 11일 낮 1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로비에서 미디어아트 웨딩마치를 올리며 부부의 연을 맺는다. 연극인 김중필씨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결혼식에서 하객들은 미디어아티스트 정선휘 씨가 제작한 전사 형상의 LED봉을 손에 들고 흔들며 신랑신부의 앞날을 축복할 예정이다.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정운학 감독은 “성작가가 오래전부터 갤러리 웨딩을 꿈꿔왔다는



사실을 우연히 접하고 미디어아트페스티벌 특별행사로 미디어아트를 결들인 결혼식을 올릴 것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예비 신랑은 정형화된 틀에 얽매지 않고 의미 있는 장소에서 의미 있는 결혼을 올리고 싶다는 신부의 희망을 전격 수용했고 양가 부모들도 선뜻 찬성해 일사천리로 미디어아트 웨딩이 추진됐다. 지난 3월부터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3기 입주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성씨는 “미디어아트 웨딩이 내 일생의 이벤트이기도 하지만 입주작가로서도 의미 있는 이벤트가 될 것 같아 빛고을시민문화관을 택했다”고 말했다. 미디어아트 웨딩은 ‘2014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개막식이 시작되는 오후 7시까지 계속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집 나간 아들 대구·안산·일본서 찾을 수 있을까요

광주문화재단 연극 ‘애꾸눈 광대’ 11월부터 순회 공연

‘애꾸눈 광대’가 대구·안산을 거쳐 일본에 간다. 광주문화재단은 7일 “1980년 5월을 온몸으로 관통해온 이지현 씨의 자전적 삶을 다룬 연극 ‘2014 애꾸눈 광대’가 대구, 안산, 일본 오사카 공연에 나선다”고 밝혔다. 5·18부상자동지회 초대회장을 지낸 이지현씨의 ‘2014애꾸눈 광대’는 8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마지막 상설공연을 선보인다. 재단은 지난 5월부터 매주 둘째, 넷째, 수요일 총 10회에 걸쳐 무대에 올렸다. ‘애꾸눈 광대’는 80년 5월 항쟁의 현장에서 계엄군에 의해 한쪽 눈을 잃은 주인공이 이후 살아남은 자의 부채의식을 짊어지고 5월 진상규명운동과 민주화를 위해 온몸을 내던지면서 가정은 파탄 나고, 가출한 아들을 찾

아 광대가 되어 전국을 떠돌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상설공연 10회,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순회공연 10회를 추진했고, 올해 역시 상설공연 10회, 창원·공주·제주 등 전국순회 공연을 진행했다. 광주문화재단은 5월 정신의 전국화와 광주 공연문명화를 통한 지역교류의 하나로 대구 기획공연을 추진 중이다. 대구 문화예술사회적 기업 ‘꿈꾸는시어터’와 공동기획으로 오는 11월 27~29일까지 3일간 대구 소극장 ‘꿈꾸는시어터’에서 3회 공연을 올린다. 또 12월 20일 안산공연을 통해 광주정신으로 세월호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며, 내년 1월 21~22일 일본 오사카 공연을 앞두고 있다. 문의 062-670-749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관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길이 ~500cm, 10T 통나무 1개

식탁 · 좌탁 · 테이블 · TV · 침대 · 책상

통원목가구 저가 소나무가 아닙니다! 친환경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광주최초판매 (가정용/인테리어) 헐리웃/국내배우 인기상품 ☎1899-0240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